

朴 鎬 星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봄 이미지의 금속표현연구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裴 眞 實

봄 이미지의 금속표현연구

朴鎬星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裴眞實

認 准 書

裴眞實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논문개요

조형에 있어 자연의 세계는 보다 친밀하게 표현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자연의 소재 중 특히 계절에 의한 주변사물의 변화는 또 다른 흥미를 자극하여 창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무언가 변화의 시기가 되면 격동기가 있듯 계절의 변화 역시 그냥 덤덤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샘도 하고 자리싸움도 하면서 온다. 특히 봄은, 만물의 소멸로 상징되는 겨울과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으로 하는 봄의 다툼 후에 오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앞서게 된다.

따라서 혹독한 추위로 움츠러든 겨울날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탄생으로 온 대지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변화를 주고자 하는 마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이런 기다림을 갖게 하는 봄을 주제로 계절의 변화에 의해 느껴지는 감정들을 조형화 하고자 한다. 이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장 채소에 싹을 틔우는 모습을 연출하여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는 사각 프레임을 사용하여 새싹이 잘 자랄 수 있는 보호의 여건으로 온실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나른한 겨울날 봄의 느낌을 좀 더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에 비유하고, 봄에 대한 기다림을 식물에 인위적인 상황을 부여해주어 식물의 향일성(向日性)으로써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내면적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2
II. 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2. 모형 전개	5
3. 작품 및 작품설명	6
III. 결론	22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내 마음의 봄,	6
【작품 2】 봄의 향기	8
【작품 3】 기다리는 마음으로...	10
【작품 4】 이른 봄날에...	12
【작품 5】 또 하나의 시작	14
【작품 6】 작은 바람	16
【작품 7】 설레임	18
【작품 8】 꼬마 래디시	20

I. 서론

1. 연구 목적

자연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예술적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그 중에서도 계절의 순환에 의한 자연의 변화는 뚜렷한 특성을 갖기에 더더욱 내면적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루하고 지나간 겨울을 보내는 사람이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나, 무덥고 지치는 여름에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는 것도 또한 낙엽이 떨어지는 황량한 가을에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포근히 감싸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는 항상 인간이 새로움에 대한 변화를 꿈꾸기 때문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사계절의 변화 중에서도 추운겨울에 생명이 약동하여 따스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봄을 소망하는 마음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와 기다림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마음과 흡사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겨울날 봄의 느낌을 좀 더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에 비유하였고, 이러한 봄을 맞이하고자 하는 본 연구자의 내적 심상을 기다림으로 표현하는데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봄이라는 주제를 조형화함에 있어서 봄에 일어나는 자연현상 보다는 봄이 오기 전에 봄의 분위기를 느끼고자 하는 내적 심상을 형상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나간 겨울날 생명이 소생하는 봄에 대한 기다림은 무료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마음과 유사하다는 본 연구자의 사고에 의하여 봄의 이미지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의 형상에 인위적인 상황을 부여하여 표현 하고자 하였다.

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기후조건이 아닌 미숙한 여건으로 인해서 연약하게 자란 식물의 줄기와 잎을 표현함으로써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창가의 햇빛을 향하는 식물의 향일성으로 기다림과 설레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시켜 전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속의 다양한 표면 처리 방법을 사용해 단조로움을 막아주고 질감 대비 효과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일반적인 용어인 봄은 사전적인 의미로 1년의 사계절 중 첫 번째 계절을 뜻한다.

봄은 경칩절기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과 삼라만상이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식물은 새움을 터뜨려서 아지랑이와 햇별을 내다보고 사람 또는 이 모든 것이 겨울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 생명을 얻어 활기찬 성장을 보이면서 생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뜻에서 ‘보다’의 명사형이 ‘봄’이라는 어형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¹⁾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 차가운 하늘에 날려 보내는 솔바람 소리, 늦은 오후 창가에 비치는 가녀린 햇살, 진눈개비로 질척되는 거리의 조그만 웅덩이 물, 거의 죽은 듯이 보이는 나뭇가지의 끝에서 이른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계절이 순순히 바뀌는 일은 거의 없고, 그중에서도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가 가장 까탈스럽다.

기상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3-4월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성쇠에 따른 한난이 자주 교대되어 기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봄을 봄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때에는 4일 주기성이 강해 첫날 대륙에서 분리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날씨가 화사하다가 둘째 날은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하며 날씨가 점차 기울어져 비가 내린다. 셋째 날은 다시 대륙에서 고기압이 발달

1) 최창렬, 『우리말 어원연구』, (서울 : 일지사 1998), p71.

하여 서-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내려가고, 넷째 날은 대륙의 고기압도 약해지고다음의 이동성 고기압이 좋은 날씨를 가져다 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것은 봄이 희망과 부활의 계절이고 기다리는 심정이 진하면 진할수록 오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절박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인간의 기대심리가 계절의 기상 특징과 복합작용을 일으켜 봄에 대한 애증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연구자는 매일 연속인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무료함을 주는 기나긴 겨울날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유하여 채소에 인위적으로 싹을 틔우는 상황의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2. 조형 전개

인간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존재하며, 예술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술가는 자연에서 조화로운 질서와 법칙을 인식하며 실체와 자신의 내면세계를 결합시켜 표현한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는 없으며 예술가의 심상을 거쳐 형상화 될 때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형전개에 있어서 봄의 이미지는 봄이 가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봄을 느끼고 기다리는 마음이다.

본 연구자는 봄의 설레임, 희망 등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을 바탕으로 겨울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장 채소 중 양파, 무, 감자, 고구마, 당근, 아보카도, 래디시에서 자라는 싹의 모습으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또한 사각프레임을 부분적으로 넣어주어 채소를 외부의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온실의 의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기능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인 방향기, 램프, 거울, 합, 촛대, 액자, 시계를 중심으로 이미지 전달과 공예로서의 쓰임의 욕구가 부합되도록 제작하였다.

주재료는 순수함, 새로 시작되는 희망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순은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가녀린 느낌을 주었고 철, 적동, 황동, 흑단, 금도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장식적인 느낌을 주었다.

3. 작품 및 작품설명



【작품 1】 내 마음의 봄,

205×90×180(mm)

순은, 철, 흑단, 은박, 금박, 금도금

[작품1] 내 마음의 봄

내 마음의 봄은 무기력한 삶에 작은 변화를 주어 생기가 넘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봄을 기다리는 바람을 겨울날 컵에 양파를 담아 기르는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정상적인 시기에 자라지 않은 양파의 여린 싹은 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사각 프레임은 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보호의 여건을 갖는다.

또한 봄을 상징하는 새싹과 꽃의 형상으로 포목상감을 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주었고, 쓰임을 고려하여 봄 향기를 미리 느낄 수 있도록 방향기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작품 2】 봄의 향기

150×120×250(mm)

순은, stainless steel

[작품2] 봄의 향기

아지랑이 같은 흙 내음은 봄의 향을 빨리 맡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장 채소의 하나인 양파를 소재로 껍질을 막 뚫고 나온 듯한 새싹과, 뿌리의 모습이 마치 봄에 향기를 은은하게 발산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봄을 기다리며 풋풋한 흙 내음을 조금 더 빨리 느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내었다.

표현에 있어서는 용기에 양파가 담겨있는 모습으로 오래된 듯한 껍질은 거칠게, 이른봄을 상징하는 새로 돋은 양파의 싹은 광을 내주어 질감의 대비를 주었다.

또한 뿌리의 형상은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 듯한 동작으로 가냘픔과 순수함을 표현하였다.

불을 붙였을 때의 작은 불빛은 봄을 소망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실용성을 주어 램프로 제작하였다.



【작품 3】 기다리는 마음으로...

500×125×520(mm)

순은, 철, 유리

[작품 3]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홀로 한곳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추운 겨울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감자에서 자라는 줄기와 싹을 창문과 같은 사각프레임의 투각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쓰임의 기능을 부여하여 거울로 제작하였다.

감자는 단수의 개체로 기다림을 의미하고, 기형으로 길게 자란 가녀린 줄기는 정상적인 기후에서 자라지 못함과 창가의 햇빛을 향해 뻗어감으로 식물의 항일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감자의 표면은 오래된 듯한 느낌으로 거칠게 망치터치를 주었고, 줄기는 광을 내주었으며 싹은 뽕양게 산 처리 하여 딱 자란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4】 이른 봄날에...

72×72×115(mm)

순은

[작품 4] 이른 봄날에...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 봄이 오면 마당 한 구석에선 이름모를 싹들이 자란다.

이른 봄의 이미지를 따스하게 담아내고자 무우를 반 잘라 놓은 형태에서 싹이 돋는 모습을 조형화 시켜 나타내었다.

무우의 형태는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양지 바른 곳의 의미로 광을 내주고, 햇살을 향하여 서로 얼굴을 내미는 듯한 새로 자란 싹들은 샌딩처리로 같은 재료에서의 질감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합의를 기능을 더해 주어 본 연구자가 안고 있는 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담아내는 역할로 제작하였다.



【작품 5】 또 하나의 시작

330×280×290(mm)

순은, stainless steel

[작품 5] 또 하나의 시작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느낌을 고구마에서 싹이 자라는 생명력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반으로 자른 고구마의 형태에서 자라난 줄기와 잎은 유연한 선의 흐름으로 봄기운을 느끼게 하였고 위로 뻗어가는 줄기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나타내었다.

촉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각 프레임 안에 거꾸로 뒤집은 고구마의 형태를 넣어주어 초를 꽃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고구마의 표면은 망치터치를 주어 거칠게 나타내었고, 새로 자라는 줄기는 광을 내주고 잎은 하얗게 산 처리를 해주어 대비되는 느낌을 주었다.



【작품 6】 작은 바람

165×65×265(mm)

순은, 칠, 적동

[작품 6] 작은 바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바라는 일을 한 가지 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바람은 매일 반복되는 삶에 무언가 변화를 주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소망을 기나긴 겨울날 봄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에 비유하여 나타내었다.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장 채소인 당근에 싹을 틔워 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액자의 기능을 하는 사각 프레임은 당근의 싹이 잘 자라도록 보호해주는 온실을 의미하는 용기를 나타낸 것이고, 당근에서 돋아나는 새싹의 모습은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작은 바람을 담아낸 것이다.

또한 당근의 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 적동을 사용하였고, 새싹은 순은을 사용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작품 7】 설레임

155×160×90(mm)

순은, 적동, 황동

[작품 7] 설레임

봄을 기다리고 있으면 새로움에 대한 기대로 흥분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을 겨울날 따스한 햇살로 인해 자라난 싹에 비유하여, 채소 중에서 아보카도를 반 잘라 놓은 듯한 형태에 그 안에 있는 동그란 씨에서 싹이 돋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울퉁불퉁한 아보카도의 껍질은 망치터치를 주어 거친 느낌으로 나타내고, 껍질안의 연노랑 빛을 띠는 부분은 황동으로 나타내었으며,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의 표현은 적동을 사용하여 광을 내주었다.

그리고 동그란 씨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노란 빛을 띠는 금도금을 해주었고, 씨에서 싹이 자란 모습은 순은을 하얗게 산 처리 하여 깨끗함과 생명이 시작됨을 알리는 의미로 표현하였다.



【작품 8】 꼬마 래디시

120×70×255(mm)

순은, 철, 금도금

[작품 8] 꼬마 래디시

양중맞은 빨간 무 래디시는 마치 동네 꼬마들의 머리를 산뜻하게 깎아놓은 모습과 같다. 짧게 깎아놓은 머리를 새싹에 비유하여 컵에 담겨져 싹을 띄우는 모습을 조형화 시켜 나타내었다.

컵의 형태는 추위에서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시간이 지나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계의 기능을 더해 주었다.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단조로움을 없애주기 위해 래디시 뿌리의 끝부분이 12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 하였다.

Ⅲ. 결론

기나긴 동면을 갖는 겨울은 막 자라난 어린 싹들로 인해 생명이 시작함을 알리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한다.

본 연구는 봄 이미지의 표현을 주제로 하여 봄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본인의 감정에 이입하여 재구성하고 조형화 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자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봄을 기다리는 바람은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마음과 같다.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 미리 봄을 연출하기 위하여 저장 채소에서 자라는 싹의 형태를 조형화 하였고, 부분적으로 용기를 나타내는 사각 프레임을 사용하여 채소에서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온실의 의미로 나타내었다.

또한 순수하고 가녀린 이미지를 주기 위해 순은을 주재료로 하였으며,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소품으로 작업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결과로, 본 연구자는 작품의 주제였던 봄의 이미지를 연구 분석 하면서 내면적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작업을 계기로 형태의 한계를 벗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제시한 봄의 이미지를 통하여 봄을 기다리는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데이비드A. 라우어. 『조형의 원리』. 서울 : 미진사, 1985.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서울 : 기린원, 1990.

『예술 심리학』.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소선녀. 『봄이면 밭등에서 새순을 낸다』. 서울 : 시와산문사, 2004.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 경문사, 1989.

최창렬. 『우리말 어원연구』. 서울 : 일지사, 1998.

<학위논문>

김미임. 『여인의 봄 이미지에 대한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김지은. 『봄의 생동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미대학원, 1990.

조영선. 『봄날의 내적 생명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최진희. 『식물 모티프의 생명력 표현』.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METAL EXPRESSION OF SPRING IMAGE

Bae, Jin Sil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world of nature in modeling has been re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expression more friendly. Among the sources of the nature, in particular, the change of the surrounding substances by season stimulates another zest and motivates the desire of creation.

As there is a period of upheaval at the time of change, the change of season does not also come silently, but comes with enviousness and the fierce fighting for place. In particular, as spring comes after the fight between the winter which is symbolized as extinction of all nature and the spring which symbolizes the repletion of life, the mind to wait for spring is more preceded.

Accordingly, the winter blenched with severe cold, making the people to wait for spring, which infuses the vitality on the earth by the birth of life, is identical to have the change out of tedious daily life.

The researcher has been trying to model the feelings felt by the change of season with the theme of spring making us to wait for it. In representing this theme, I have been trying to present the appearance of store vegetable putting forth bud in order to feel the vitality of spring and, using the square frame partially, the environment like greenhouse as the protective condition for the new bud to grow well.

In addition, I have been figuring the mind to change the tedious daily life to have the feeling of spring in winter earlier, and by granting artificial situation to the plants waiting for spring, presenting the shape visually as the heliotropism of the plants.

I have been preparing the opportunity to induce the inner sensitivity through this thesis, I have been trying to provide hope and vitality to the mind of people who are very much familiar with the repetitive tedious daily life.